

DIABLO[®]

IMMORTAL™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리라

라이언 쿼의 단편 소설

이야기

RYAN QUINN

그림

CYNTHIA SHEPPARD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지식 자문

IAN LANDA-BEAVERS

크리에이티브 자문

DAVID LOMELI, JOHN MUELLER,
RAFAL PRASZCZALEK, DAVID RODRIGUEZ,
MAC SMITH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특별히 감사한 분들

SCOTT BURGESS, TODD CASTILLO, QIAN LIN LIU,
JESS LYTTON, JUSTIN MURRAY, EMIL SALIM,
HUNTER SCHULZ, BEN WAGNER, MIKE YAKLIN,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 직업에 특별한 정체성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해 준 이모탈 팀!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리라

그들이 케즈를 우리에서 끌어내고 배에 태웠을 때, 그녀는 감방에 갇혀 보낸 지난 2년보다 침묵이 더 괴로웠다. 아무도 케즈를 밀거나 침을 뱉지 않았고, 상한 생선을 던지거나 그보다 두 배쯤 불쾌한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넓은 톱날 비늘 투구를 쓴 경비병들이 각각 한 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 얹고, 부드러운 보슬비처럼 꾸준하고도 상냥하게 그녀를 미끄러운 널판지 위로 천천히 이끌었다.

지난번에는 달랐다. 지난번에는 그럴 만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필요한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희미한 존중이 느껴졌다. 아니, 이 거머리들이 꾸며 낼 수 있는 그와 가장 가까운 감정이라고 할까. 운이 좋다면, 오늘만큼은 그릇에 얼굴을 박지 않고 손을 써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속죄가 끝나야 할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난 만큼, 케즈는 아직 자기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녀를 고발한 자가 죽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지금은 그냥 수영이나 하러 가는 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고, 그저 폭풍이 잠시 잦아든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케즈는 청록색 사각형 돛 옆을 지나 배 뒤쪽에서 경비병들이 가리킨 긴 의자에 앉았다.

온화한 날이었다. 즉, 빗방울은 똑똑 떨어지고 얼굴에는 감각이 없어도 우박은 쏟아지지 않았다. 케즈는 얼음 같은 상쾌한 공기로 가슴을 가득 채웠다. 뒤쪽 긴 의자 위로 엉거주춤 웅크린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하얀 입김이 그들 앞으로 흘러나왔고, 개중 몇 명은 배에 올라타는 그녀를 바라보기도 했다. 하얀 얼굴과 햇볕에 그은 얼굴,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이 다들 얼기설기 께맨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팔은 덮여 있었지만 털가죽은 없었다. 그녀가 옛 고향에서 너무 추워 견딜 수 없을 때면 그랬듯 덜덜 떨며 몸을 감싼 자들도 있었다. 수도 펠가인을 둘러싼 수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추위의 제도 서쪽 끝에 있는 '누더기 해협'이 바로 그녀의 고향이었다. 도시의 항구에서 쏟아져 나온 표류물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들은, 어떤 위기가 발생해도 언제나 파도에 실린 위험이 덮쳐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은 누더기 해협에서 우리로 바뀌었다.

목이 굵고 코는 돼지코에 검은 머리가 조금씩 뒤로 벗겨지시 시작한 한 죄수가 기침을 하더니, 오징어를 꿀꺽 삼키기라도 한 듯 목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케즈를 보자 잠시 멈추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가로질렀더니 시선을 돌려 경비병들을 바라봤다.

“끝내주네. 내가 업고 가야 할 사람이 또 있나? 애기는 없어?”

그는 두어 번 더 기침을 했다. 케즈는 그가 사냥꾼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뿔피리와 창을 들고 파도를 누비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특별할 건 없었다. 아마 엉뚱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다짐을 했다가 우리에게 갇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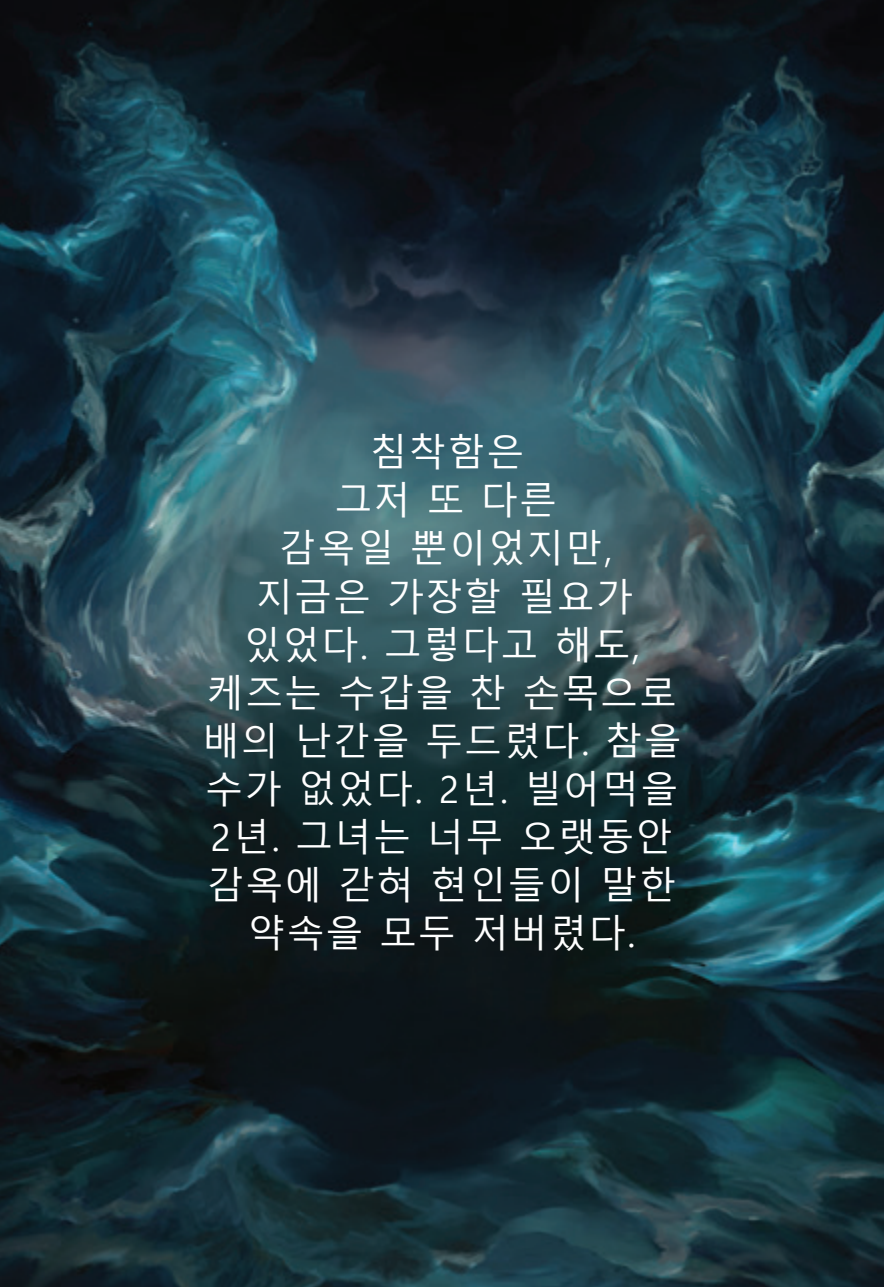
케즈는 그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았다.

탁한 피부. 잔뜩 헝클어진 채 멋대로 두건을 빠져나와 젖은 채로도 바람에 이리저리 나무끼는 검은 머리카락. 강단은 있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키. 손은 양쪽 옆으로 늘어뜨리고, 뛰어오를 준비라도 하는 듯 발끝을 양쪽으로 벌린 모습. 일어설 공간도 없던 우리도 그걸 빼앗진 않았다. 아니, 빼앗지 못했다. 감옥에서 입었던 옷은 잔뜩 해져 버렸다. 목과 소맷단은 쥐가 물어뜯기라도 한 것 같았다.

케즈는 기침을 하지도, 추위 속에서 몸을 떨지도 않았다. 오직 그녀의 입술만이 삶에 집착하는 듯 꿈틀거렸다. 케즈의 두 눈썹이 모였다. 목이 굵은 남자에게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른 녀석들이 비웃어 주게 할 수 있었다. 어차피 그도 속죄를 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다.

대신, 그녀는 훈련에 대해 기억나는 걸 되새겼다. 수군거리며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그녀가 절대 줄 수 없는 모순되는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



침착함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케즈는 수갑을 찬 손목으로
배의 난간을 두드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2년. 빌어먹을
2년.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현인들이 말한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

무리의 한가운데에 선 자신을 상상했다.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폭풍. 그녀 자신을 넘어서는 욕구. 이제는 놓아줘야 하는 욕구. 그녀는 그들의 비명이 웅웅거리는 소리로 찾아들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케츠의 이마에 깊게 파였던 주름이 풀어졌다. 입술에 힘이 빠져 일직선이 되며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소박한 차분함의 가면이 되었다. 침착함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케츠는 수갑을 찬 손목으로 배의 난간을 두드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2년. *빌어먹을* 2년.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현인들이 말한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난간을 두드리며 사냥꾼이 시선을 돌릴 때까지 그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짹짹 소리를 내며 날뻐지 위로 올라오는 장화 발소리가 들렸다. 물개 가죽이 아니라 단단한 장화였다. 서로 정확히 발을 맞추고 거들먹거리는 걸음. 바람이 오직 그녀의 귓가에서만 울부짖었다. 배의 돛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목구멍이 죄어 왔다.

세 경비병이 창자로로 갑판을 두드렸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카이논 현인이십니다.” 다른 경비병들도 차례대로 같은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다.

케츠는 가만히 앉아서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카이논은 옛 펠가인의 양식으로 제왕 같은 옷을 차려 입고 있었다.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양모 망토 한 쌍이 어깨 위에서 십자로 교차하고, 두 개의 홀로 이루어진 황금 침쇠가 어깨걸이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굵은 머리카락은 목덜미와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만, 수염은 말쑥하게 다듬은 모습이었다.

입은 평온하고 아래로 처져 있었고, 회색 눈과 찌푸린 얼굴은 무기력해 보였다.

전형적인 공무원의 얼굴. 텅 빈 그릇. 그를 바라봐야 하는 건 그의 지위 때문이었다.

두 손이 수갑으로 묶여 있어도, 케츠는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배 밖으로 밀어내 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는 떨어지다가 날뻐지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시 물 위로 올라오기 전에 바다 야수 마로지에게 공격받을지도 모른다.

훈련을 받던 때 이후로 늘 그녀와 함께해 온 동반자로,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 자신과 옛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고대의 속삭임들이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중얼거렸다. *바람은 자르지 않는다,*

그들은 말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평온을 찾으면, 그러한 평온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낼 것이다.

그녀는 목소리를 밀어냈다. 이렇게 안개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침착함을 가장할 수도 없었다.

카이논은 뒤쪽 긴 의자 앞을 서성거렸다. 흰칠한 키에 갈색 머리가 흠뻑 젖은 한 죄수는 현인의 시선이 자신을 스치자 허리를 꼴꼴이 펴고 앉았다. 카이논은 그를 그냥 무시하고 물고기처럼 볼을 부풀리며 말했다.

“메르웬의 체류지는 큰 의미도 없고 여행할 일도 없는 작은 섬이다. 이번 주에는 그곳이 안개에 휩싸였다.”

케즈도 메르웬의 체류지를 알고 있었다. 누더기 해협에서 만나질 정도 배를 물면 갈 수 있는 곳. 고고한 척하고 재미없는 옛 여제 메르웬이 한때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대부분의 현인들이 주장하기로는, 그 안개가 자신을 살해하려던 자매에게서 몸을 피했다가 죽어간 메르웬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내고 찬미해 달라며 내뿜는 마지막 숨결이라고 했다.

현인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거기 남은 자들이 마귀로 되살아났다면, 안식을 찾아 줘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거다.”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면, 마귀는 누더기 해협과 나머지 섬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모조리 도살할 것이다.

카이논은 죄수들의 이름과 번호를 하나씩 읽었다. 폰니드, 세드루크, 실라. 모두 같은 섬 출신이었다

“가트, 누더기 해협 출신. 속죄 기간 1년. 남은 기간 1년.” 돼지코 사냥꾼이 대답하듯 기침을 했다.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누군가 못 믿겠다는 듯 수군거렸다.

가트는 허죽 웃었다.

카이논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팔티크, 누더기 해협 출신. 속죄 기간 4개월. 남은 기간 1년.” 팔티크는 카이논의 시선을 받고 몸을 꼴꼴이 펴던 죄수였다. 그는 지나가는 카이논의 등을 향해 경례를 했다.

“케즈, 누더기 해협 출신.”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와 별반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속죄 기간 2년. 남은 기간 2년.”

“네.” 그녀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펠가인은 오늘 너희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 오직 너희의 가능성만을 볼 뿐이다.” 그는 전에도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듯 지친 목소리였다.

“이제 너희의 속죄는 갚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모두를 향해 손짓했지만, 두 눈은 케즈에게서 떼지 않았다.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너희 영혼이 달라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틀 동안 이 일을 해낸다면, 내가 너희의 형을 사면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받아 주기만 한다면 어느 섬으로든 가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이틀. 그리고 고향. 그 말이 가슴 속 깊이 가라앉았다.

카이논은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혹여 실패하고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각자의 우리로 돌아가 너희의 수치를 하늘로부터 감추어야 할 것이다.”

케즈는 그를 밀어내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여정이 지나가고 메르웬의 체류지에 다가가는 사이 가트의 기침도 잦아들었다. 현인의 수행원 모두를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배였기에 항해에는 손이 많이 필요했고, 카이논은 죄수들이 노를 저을 수 있게 수갑을 풀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케즈는 다시금 반란을 일으켜 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다. 배를 점령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거다. 폭풍 너머 멀리까지, 그들 모두 지금까지 경험해 본 그 어떤 항해보다 더 먼 곳까지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알았다. 단 이틀 동안 더러운 일을 해 주면 전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경례부터 붙이던 팔티크 같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회를 거부할 줄 모른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누더기 해협 출신이었다. 대부분에게 어떤 종류의 기회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

안개가 그들 주위로 내려앉고, 진눈깨비를 막기 위해 설치했지만 흐릿한 안개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물 위에 하얀 거미줄처럼 둘러붙었다. 뱃머리 쪽에선 누군가 일정한 주기로 뿔피리를 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는 소리 없는 상대와 충돌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누더기 해협 출신 몇 명이 몸싸움까지 해서 노를 붙잡고는 배를 밀어붙였다. 하루가 길어지고 속도가 느려지자 카이논이

나머지 구간은 경비병들이 노를 저어 지나가라고 했다.

해협 출신들은 무례한 오합지졸이었지만, 가트는 그래도 제대로 된 전투를 경험해 본 것 같았다. 케즈는 팔티크와 대화하고 있던 그를 찾아가 헛기침을 했다.

“현인이나 경비병들이 몇 명을 상대해야 하는지 얘기했어? 아니면 그쪽 지형에 관한 거라도? 우리가 쓸 무기는 뭘 가져왔지?”

가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네가 명령이라도 내리겠다는 건가?”

케즈는 그런 녀석을 알았다. 그의 세계에 대장은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말했다. “아니. 난 모두와 함께 살아남고 싶은 것뿐이야.”

그는 벌떡 일어섰다. 발밑이 계속 흔들거렸지만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가트는 키가 컸다. 가까이에만 있어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 관절을 꺾었다. 평소에도 익숙한 행동인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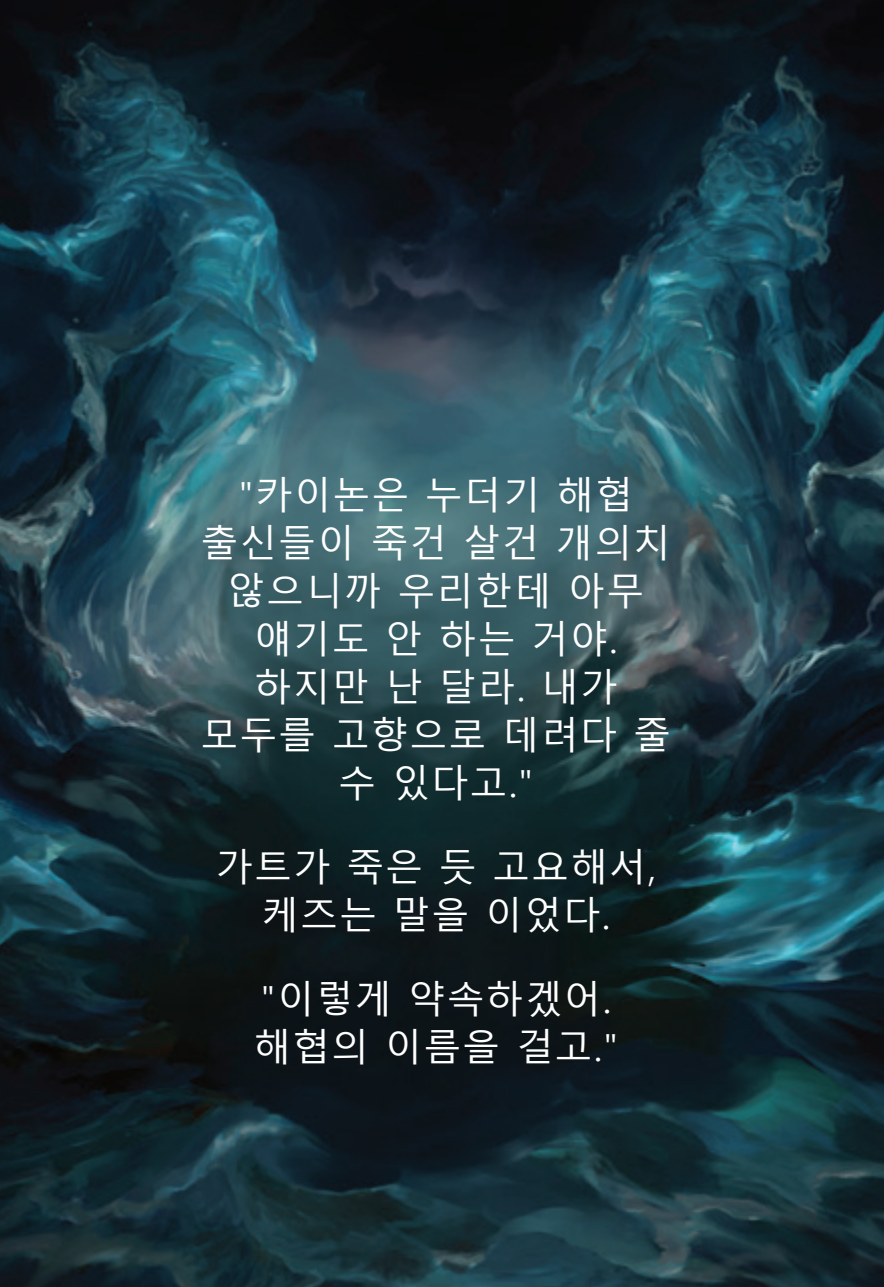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한은 그랬다. 하지만 그는 팔이 길었고, 오랫동안 묶여 있던 주먹도 이젠 풀려난 상태였다. 케즈는 조롱하듯 내려다 보는 그의 시선 앞에서 애써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나한테 이래라저래라할 생각은 하지 마, 계집.”

차분함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케즈는 가뜩이나 보잘것없는 성공 확률을 더 희박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애써 짜증스러운 기색을 억눌렀다. “나는 나선에서 살아 돌아왔어. 내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 말에 가트는 사이사이가 벌어진 치아를 내보이며 활짝 웃었다. 그녀에게 다가오며 두 팔을 활짝 벌리는 그의 돼지 같은 얼굴에 광기가 드리웠다. 그의 뜻은 명확했다. *입만 살았구나. 덤벼 봐. 주먹을 휘둘러.* 경비병들도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려는 걸 본 것 같았지만,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케즈는 가트를 배 밖으로 던져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얼어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주먹을 내밀고, 다른 쪽 주먹을 뒤로 빼서 공격할 준비를 했다. 가트는 잔뜩 긴장하며 팔을 들어 방어했고, 그때 케즈가 그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누더기 해협의 특제 속임수였다. 위태롭고도 익숙했다. 자그마한 혼란이 뒤따랐다. 흰칠한 팔티크가 필사적으로 다른 죄수들을 뜯어말렸다. 몇 명은 그녀를 배 밖으로 던져 버리려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크게 웃느라 추위까지 잊어버릴 정도였다.



"카이논은 누더기 해협
출신들이 죽건 살건 개의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내가
모두를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가트가 죽은 듯 고요해서,
케즈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약속하겠어.
해협의 이름을 걸고."

가트의 목덜미에 핏줄이 툭툭 불거져 나왔지만, 똑바로 일어난 후에는 그도 웃음을 터뜨렸다. 케즈는 두 손을 들어올려 이제 다 끝났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녀는 현인의 일행은 몰라도 해협 출신들은 다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카이논은 누더기 해협 출신들이 죽건 살건 개의치 않으니까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내가 모두를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가트가 죽은 듯 고요해서, 케즈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약속하겠어. 해협의 이름을 걸고.”

가트는 일어서서 배 측면의 무언가를 붙잡고 손을 들었다. 그의 미소가 달라졌다. 마침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케즈와 가트, 팔티크는 주위를 가득 채우고 내려앉은 안개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배 앞쪽으로 갔다. 수행원 둘이 카이논의 좌우에서 그를 지켰다. 다른 한 명은 커다란 짐 가방 위에 앉아서 때때로 뿔피리를 붙여 안개 속으로 배가 나아가고 있음을 알렸다. 현인은 뱃머리 너머를 강렬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케즈가 입을 열자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카이논의 표정은 음울했다. “두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시켰다. 섬에는 많아 봐야 여덟 명 정도만 남아 있을 거야.”

케즈가 세어 본 바로는 죄수가 총 여섯 명이었다. 폰니드, 세드루크, 실라, 팔티크, 가트, 그리고 그녀까지. 그녀는 카이논에게 다가가다가 조심스럽게 경비병들이 위협적인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리 밖에서 멈췄다.

“격풍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그는 눈썹을 추켜세웠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펠가인에서 할 일이 있다. 지금 메르웬의 체류지에 이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격풍사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너다.” 그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트는 현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잊은 듯 콧방귀를 뀌었다. “저 여자가 진짜 격풍사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 표정엔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공포? 동경?

케즈는 지금쯤이면 격풍사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카이논이 매몰차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훈련 중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메르웬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녀는 실제로 훈련을 대부분 완료했다. 혼자서 얼음 호수를 가로지르고, 한 번에 몇 분씩, 몇 년 동안이나 안개를 들이마셨다. 칼춤 배우고, 마로지를 죽이고,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기 위해 대가까지 치르고, 펠가인의 과거에 대한 지혜를 담은 매개체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평생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말을 들어야 했다. 수 세기에 걸친 회상이 일천 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증얼거렸다.

케즈는 언제나 쉽게 화를 냈지만, 안개와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안개의 속삭임은 상태를 더 악화시키곤 했다. 침착함이 조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그녀의 지위를 논할 때가 아니었다. 특히 그 사람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짐 가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뿔피리를 든 경비병이 가방에서 뛰어내린 후 덮개를 열었다. “너희 모두를 위한 창이다. 튼튼한 가죽 방어구하고.”

“그리고요?” 케즈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자 다시 물었다. “제 검은 어디 있습니까?”

카이논이 한숨을 쉬었다. “네겐 쓸모가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녀 자신의 실패를 일깨워 주려고 가져온 걸까?

현인에게 화를 내는 건 심각한 문제였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건 처벌 가능한 범죄였다. 케즈는 말을 골라서 애원하려 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그녀의 고통뿐이었다.

“그건 제 인생입니다, 이 입만 산 새대가리 양반아.”

카이논의 물고기 같은 볼이 더 크게 불거졌다. 그가 두 손을 들어올리고, 수행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뿔피리를 든 경비병이 케즈를 붙잡으려 하는 것 같았고, 케즈는 주먹을 움켜쥐고 무릎을 구부렸다.

팔티크가 둘 사이로 끼어들어 케즈의 공팔 위를 때렸다. 그의 뜻은 명확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모두가 수장된다.** 건달의 방식이었다.

“카이논 현인님, 부디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이 여자가 분수를 잊었습니다만... 전부 저희 모두의 속죄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팔티크는 손을 펴서 케즈와 경비병들, 다른 죄수들과 현인을 가리켰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케즈는 그 말이 싫었다. 펠가인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추위의 제도 구석구석에서 누구나 흔히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지만, 그와 더불어 “다른 모두의 실수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비난을 모두가 나눠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가장 겁쟁이 같은 태도였다. 그런 생각이 악자를 지도자로 만들고,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편애하게 했다. 카이논의 죄책감, 현인의 죄책감은 추위의 제도 모든 사람의 몫이었지만, 케즈의 분노는 그녀만의 문제였다. 그 분노가 아무리 옳게 느껴져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팔티크의 말이 카이논 현인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가져가라.”

경비병들이 짐 가방을 열고 뒤적거리는 사이,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내일 해 질 녘에 돌아오겠다. 마귀들의 수를 줄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날 찾아오지 마라. 너희 모두가 각기 한 마리 이상을 처치하지 못하면, 너희 속죄는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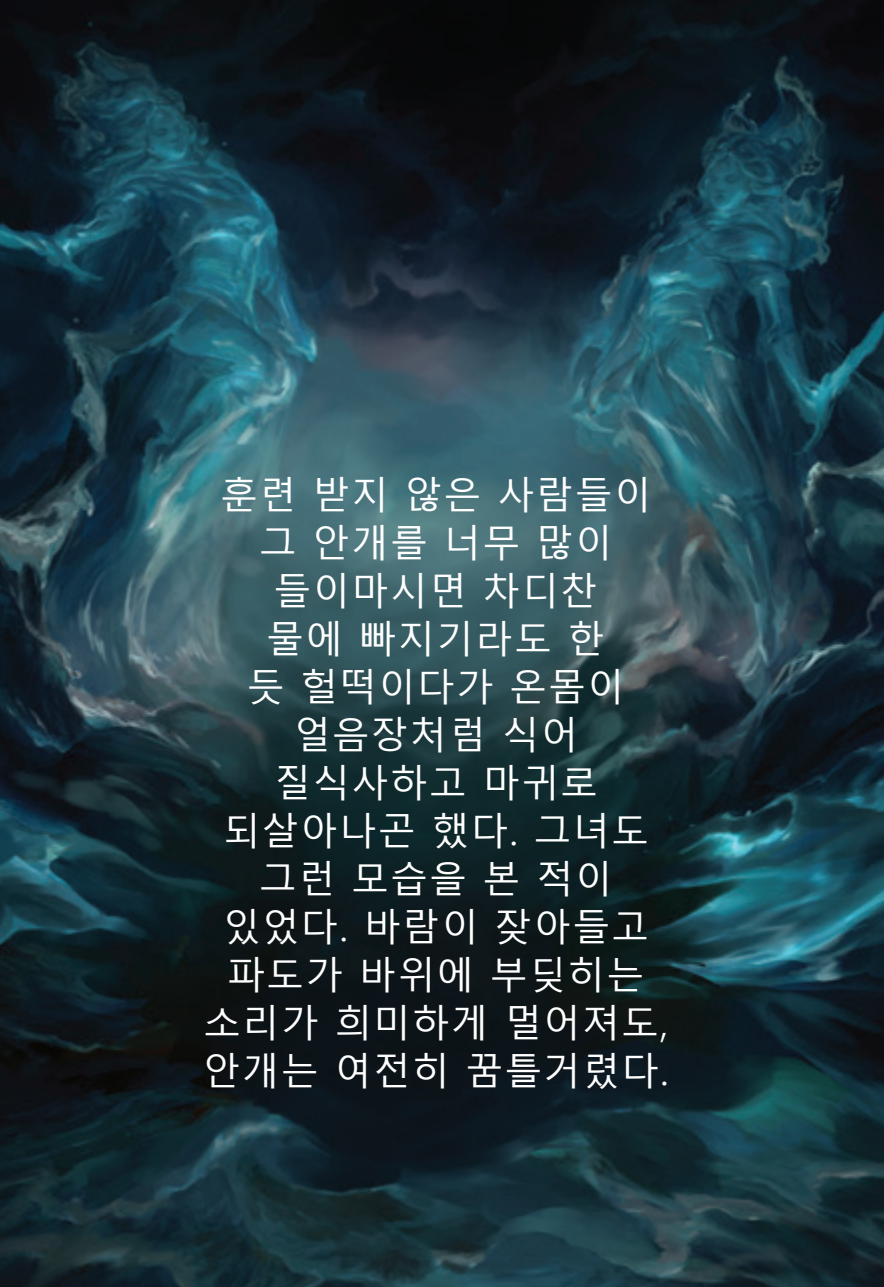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가죽 방어구를 착용하는 사이, 한 경비병이 케즈의 검을 그녀의 손에 건넸다. 그녀는 애써 한숨을 억눌렀다. 검의 톱니가 부서졌던 때는 여전히 생생했다.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나마 칼날은 잘 연마되어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격풍사들이 펠가인의 적에 맞서 북풍의 분노를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칼날, 바람날은 소중하게 보살펴야 했다. 칼자루도 제대로 손을 보지 않은 지 몇 년이 된 것 같았다. 낡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영망이 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쓸모 없진 않았다. 그녀에겐 그랬다.



그들은 넓게 펼쳐진 갈색 바위 해안의 가장 평평한 곳에 멈춰 선 배에서 뛰어내렸다. 뗏목으로 써도 좋을 만큼 큰 유빙들이 주위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다. 작은 골짜기가 섬의 언덕 가운데를 가르고, 그곳에 안개가 가장 짙게 드리웠다. 여섯 명의 죄수는 케즈를 선두로 그 골짜기를 향해 터덜터덜 걸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개를 너무 많이
들이마시면 차디찬
물에 빠지기라도 한
듯 험덱이다가 온몸이
얼음장처럼 식어
질식사하고 마귀로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도,
안개는 여전히 꿈틀거렸다.

앞서 카이논은 케즈를 직접 상대하기 싫은 듯 가트에게 안개 근처에서 그들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로는 다른 곳에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괜히 목숨을 잃어서 안개마귀로 되살아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그냥 해안에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적어도 해안이 더 따뜻하기는 했다. 카이논은 그들에게 털가죽과 두껍게 엉겨 붙은 약취 나는 양모로 만든 망토, 말린 버섯이 든 주머니를 주었다. 현인은 그들의 성공에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돌아와야 하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골짜기 옆에 멈춰 잠시 숨을 돌렸다. 장화가 자갈을 밟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섬에서 사라진 새와 곤충의 소리를 대신했다.

계곡 입구 너머로, 추위 속에 내뿜는 숨결처럼 하얀 안개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마치 고체 같은 안개 덩어리가 일행의 옆으로 떠올랐고, 케즈는 거기 접촉하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켜서며 다른 이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개를 너무 많이 들이마시면 차디찬 물에 빠지더라도 한 듯 험덱이다가 온몸이 얼음장처럼 식어 질식사하고 마귀로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도, 안개는 여전히 꿈틀거렸다.

일행은 다들 제멋대로 창을 들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창을 앞쪽으로 든 사람도 있었고, 창을 옆구리에 바싹 붙이는 사람도 있었다. 케즈는 그걸 보고 콧잔등을 찌푸렸다. 원래부터 사냥에서 창을 썼던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듯했다. 그것도 잘 봐 줘야 그렇다는 말이다.

팔티크가 창의 목 부분을 꼭 쥐고 있어서, 케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잡는 법을 고쳐 주었다. “적을 찌를 때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해.”

“네가 앞장서는 게 좋겠다, 팔티크.” 가트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끼어들었다. “제국의 남자라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지.”

케즈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너만 잘난 것처럼 굴지 마.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마귀들의 수가 늘어날 뿐이야. 그 정도 쉬운 문제라면 너도 이해할 수 있잖아?”

가트는 킬킬거렸지만, 그래도 입은 다물었다. 팔티크는 부끄러워하는 듯했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동안 손을 바꾸고 허공을 찌르며 연습해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단한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그녀는 누더기 해협 이름을 걸고 모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터덜터덜 걸었다. 그리고 하나뿐인 검은 칼날과 길을 앞뒤로 번갈아 보면서, 몇 분에 한 번씩 안개가 일행을 완전히 둘러싼 건 아닌지 확인했다.

메르웬의 체류지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려고 골짜기 밖 높은 곳에 집을 지었다. 케즈는 해협 출신들이 골짜기의 산마루 위로 올라가 주민들의 예전 집에서 사냥감을 찾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크게 호를 그리며 죄수들을 언덕 위로 이끌었다. 안개가 덮일 때마다 갈지자로 걸으며 골짜기의 벽면에서 멀어지고, 항상 발밑에 굴러 다니는 자갈을 확인한 후 다른 이들에게 계속 가라고 지시했다.

위로 올라가면 안개가 열릴 거라 생각했지만, 한 시간 가까이 걷고 나자 세드루크와 실라가 케즈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고통스러운 만큼 빠르게 고개를 흔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분명한 징후였다.

케즈가 목소리를 높여 중요한 일은 빼놓은 채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안개가 더 열은 곳에 도달하기 전까진 멈추지 않을 거야. 다들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다른 소리는 전부 무시해.”

그녀가 일행을 가파른 언덕 위로 이끌면서 누더기 해협과 유빙 밟기, 속죄 이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맛있는 굶은지느러미와 버섯 요리, 그리고 고향의 친구들이 그림다는 얘기 등 말하기 싫었던 속내까지 전부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동안 아무도 말대꾸하지 않았다.

“쉬르칸과 나는 여름이면 유빙 위를 돌아다니곤 했어. 그녀는 격공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고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떠 내려가는 걸 보면...”

어떻게든 해야 하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팔티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현인들에게 칼춤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어. 얼음 위에 늘어앉아서 그들에게 우리 마음 속 순수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지. 그래도 난 사흘 췌가 되면 그들이 우린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때 그들은 우리가 괜찮다고 판단했어. 그리고 내가 몇 달 동안 연습했을 때, 그들은 우릴 배에 태워 나선으로 보냈어. 처음 안개를 맛보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 우린...”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침착해야 했다. 집중해야 했다.

“그 전에는 뭘 했는데?” 가트가 씩씩거리며 따라오면서 물었다.

“그냥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지.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됐으니까.” 특별할 건 없었다.

“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는 말했다.

“나도야.” 팔티크가 말했다.

이야기할 거리가 멀어지자, 케즈는 정화의 기도와 평온의 기도, 유산의 기도를 세 번씩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내 말했다.

통제받지 않는 힘은 영혼의 파멸이다.

다른 이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려면 변화해야 한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악의를 씻어낸다.

팔티코도 그녀를 따라 기도문을 외웠고, 다른 사람들도 불안한 시선을 이리저리 던지면서도 그들을 따라 했다. 골짜기 한쪽 면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안개가 눈 덮인 바위를 둘러싸고 뒤엉킨 손가락처럼 위를 가리켰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케즈는 다시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확인했지만, 안개의 장막이 워낙 두꺼워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다.

다른 사람들도 공포에 질린 듯했다. 케즈는 이런 곳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다들 몇 분을 건디는 것부터 시작했었다. 아무리 훌륭한 격풍사라고 해도 두꺼운 벽처럼 공중에서 모두를 찍어 누르는 이런 안개 속을 멋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산마루로는 갈 수가 없었다.

계곡 아래쪽, 골짜기 깊은 곳 어딘가에 숨을 곳이 있다면 그녀의 부름이 사냥감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차피 비는 오지 않았다. 바람은 고요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쩌면 안개가 그들에게 내려앉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였다. 몇 분 내로 시냇물을 찾아내면 엄폐물과 물, 장애물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멀리 우회한 후 반대쪽에서 마루를 공략해야 했다. 팔티크의 불편한 걸음과 가트의 미친 듯 두리번거리는 시선을 보며, 케즈는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입은 다물고 빠르게 움직일 거야.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시냇물이나 강 소리야. 흐르는 물을 찾아서 상류로 올라가야 해.”

이제는 입을 다문 가트가 일행 앞쪽으로 뛰어 나가서 눈을 가늘게 뜨고

안개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난 귀가 좋아. 내가 앞장서지.”

케즈는 가트가 사냥꾼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름 실력은 있어 보여서,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그의 뒤를 따라 달렸다. 케즈는 최선을 다해 흐르는 물소리를 찾고, 귀를 간지럽히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은 무시하려고 애를 썼다.

통제받지 않는 힘은 영혼의 파멸이다.

그리고,

굳게 잡은 힘은 세계의 파멸이다.

그들은 모자란 호흡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빠르게 언덕 아래로 종종걸음을 쳤다. 계곡이 평탄해지고 그들의 흔적이 구불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가트 뒤로 바싹 따라붙어 누구도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했다.

가트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케즈는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 그는 어깨를 굳게 펴고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케즈는 긴장하며 몇 걸음 물러났고, 그녀가 검을 앞으로 돌리자 그가 갑자기 돌아섰다-

그는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다. 몇십 걸음 떨어진 곳에 반쯤 얼어붙어 물고기나 수초도 없이 느릿느릿 흐르는 청록색 시냇물이 있었다. 물은 1미터가 채 되지 않는 깊이로 모난 바위 위를 지나갔지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보였다. 계곡의 벽에서부터 달리면 일 분쯤 떨어진 거리일 것이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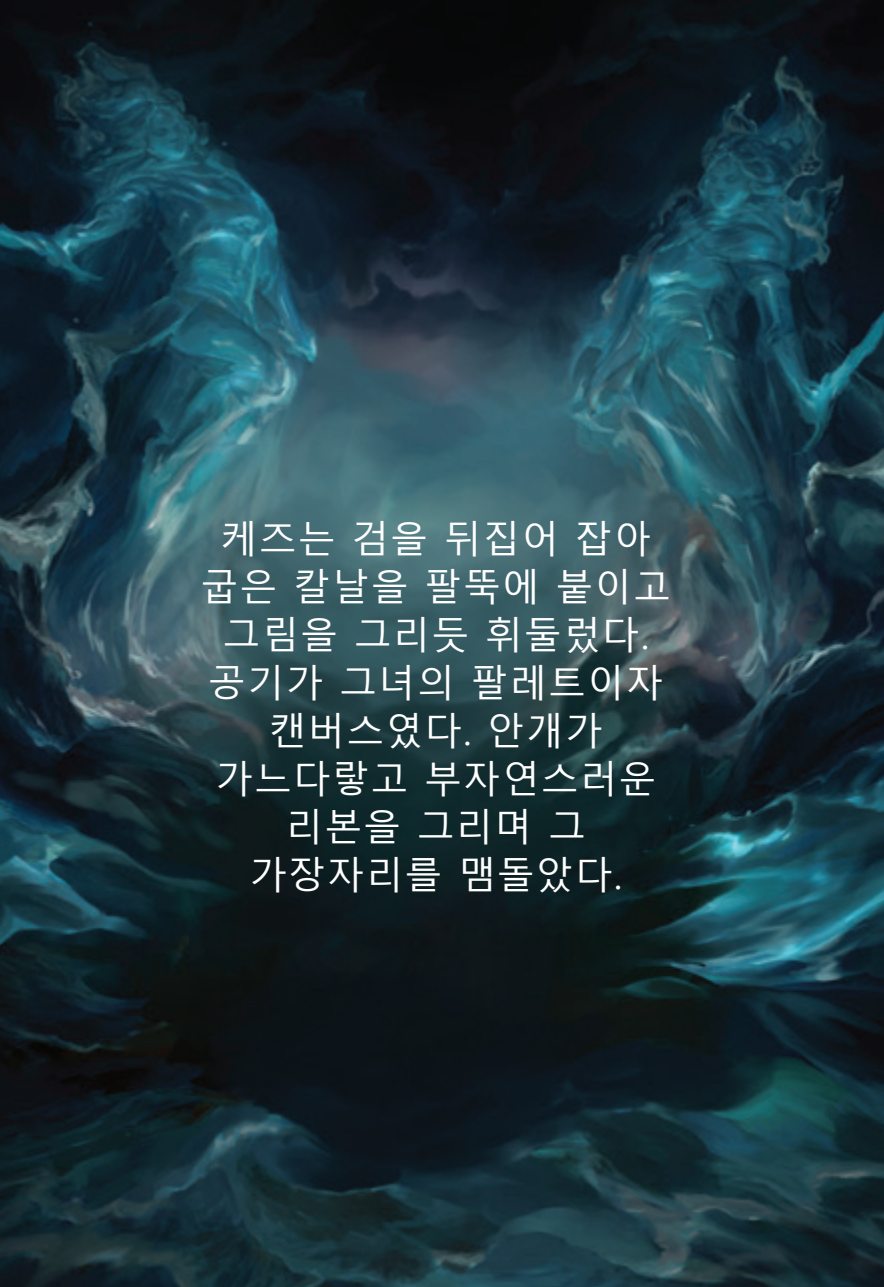
안도의 한숨이 하얀 서리로 뿜어져 나왔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표출했다. 옆으로 펼쳐져서 더 가까이 서 있는데도 그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케즈는 수를 세어 보았다. 다섯 명. 죄수들이 여기 다 있었다.

“우리가 발각되면 죽은 사람들이 우릴 쫓아올 거야.” 케즈가 설명했다. “내가 이 냇물을 이용해서 적을 한 명만 불러내겠어.”

그녀는 말을 이었다. “개중에는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보이는 자들도 있어.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야. 안개의 마귀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숨결과 거죽까지 빼앗아 버릴 거라고.”

팔티크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뒤틀렸고, 케즈는 반사적으로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어울리지 않게 조용한 가트가 혹시 마귀를 죽여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직 없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죽는 걸 본 적은 있어.”



케즈는 검은 뒤집어 잡아
굽은 칼날을 팔뚝에 붙이고
그림을 그리듯 휘둘렀다.
공기가 그녀의 팔레트이자
캔버스였다. 안개가
가느다랗고 부자연스러운
리본을 그리며 그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그래서 검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 가트는 그렇게 물으며 자기 농담에 키들키들 웃었다. 격풍사는 자부심과 실용적인 면 때문에 검을 두 개 들었다.

케즈는 이제 그의 날선 말을 무시하는 법을 알았다.

그녀는 팔티크를 바라봤다. “내 얘기 잘 들어. 우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 현인도 다시는 우릴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 알아?” 머뭇거리는 목소리였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약속했잖아.” 그녀는 말했다. 바랐던 것보다 조금 더 거친 목소리였는데,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내가 우리 해협 이름 걸고 약속하지 않았어?”

가트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녀를 바라봐서, 케즈는 다시 입을 열었다. “기습 공격으로 처치할 수 있어. 조심해서 한 번에 하나씩 상대하면 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서, 케즈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관해 자세히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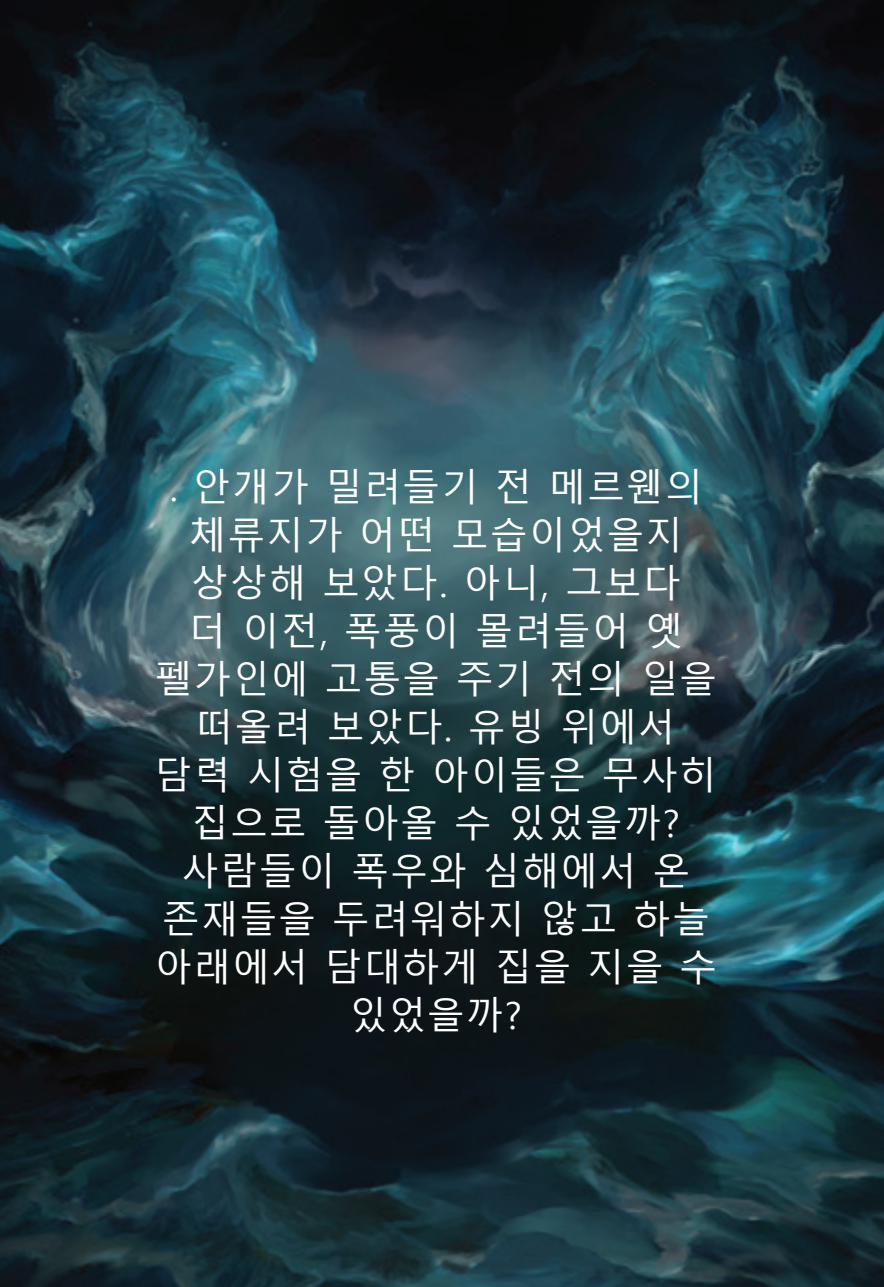
“그들에게 도달하려면 이 물이 최대한 빨리 흘러야 해.” 케즈는 얼음으로 군데군데 막힌 물줄기를 가리켰다.

누더기 해협에 옛 정점의 높은 동굴망이나 폭풍막이의 강대한 방파제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해협 사람이라며 누구나 쓰레기를 뒤지고, 물건을 부수는 법을 알았다. 물론 그런 행위가 펠가인 제국의 유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죄수들은 순식간에 길쭉하고 무거운 돌들을 찾아냈고, 줄지어 가져온 돌들을 시냇물에 던져 얼음을 깨뜨렸다.

케즈는 검을 뒤집어 잡아 굵은 칼날을 팔뚝에 붙이고 그림을 그리듯 휘둘렀다. 공기가 그녀의 팔레트이자 캔버스였다. 안개가 가느다랗고 부자연스러운 리본을 그리며 그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죄수들은 대형을 이뤄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자기가 아는 걸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적은 우리 숨결에 이끌려. 심호흡을 해. 절대 안개를 들이마시진 말고. 내가 신호하면, 가트와 팔트릭은 있는 힘껏 숨을 내쉬어. 나머지는 숨을 참고. 창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해. 순식간에 벌어질 테니까.”

그녀가 선택한 대표들이 숨을 들이쉬고, 케즈는 소매를 걷고 들쭉날쭉한 칼날로 팔뚝을 뱀다. 무척이나 아팠지만,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었다. 보일 듯 말 듯한 피 여남은 방울이 얼음장 같은 시냇물로 떨어졌다. 그녀는 흐르는 물을 바라봤고, 피로 얼룩진 검을 뺏으며 피가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죽은 메르웬에게 기도했다.



안개가 밀려들기 전 메르웬의
체류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았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 폭풍이 몰려들어 옛
펠가인에 고통을 주기 전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유빙 위에서
담력 시험을 한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폭우와 심해에서 온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아래에서 담대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피는 정말 빠르게 도달했다. 케즈의 칼날이 가리킨 곳을 바람이 때리고 얼음이 갈라졌다. 시냇물은 빠르게 흐르며 그녀의 피를 체류지 중심부로 가져갔다.

“지금이야.”

가트와 팔티크가 하얀 숨결을 내뿜었다. 몇 초 후, 그에 응답하듯 고독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의 비명이 마치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이었다. 케즈의 부름이 너무 효과가 좋았다.

그들이 미처 창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안개가 해일처럼 그들을 덮쳤다.

케즈는 몸을 뒤틀며 머릿속으로 달려드는 과거의 유령들을 피해 현재만을 주시했다.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다. 카이는 현인이 그들에게 계속 싸우라고 소리쳤다. 웬지 몰라도, 무자비하게 요란한 바다의 굉음 너머로 모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모든 게 너무 거칠었다. 현재처럼 차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녀의 동료가 아니었다. 이번의 동료는 아니었다.

안개 속 모든 것은 정박하지 못하고 시간 속을 떠돌았다. 그들은 내면에 기억을 품고 더 많은 걸 갈망했고, 케즈는 그들을 막아내는 방법을 몰랐다.

그러서 그녀는 그냥 볼 안쪽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서는 검을 굳게 쥐고 휘둘렀다. 그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안개가 발치를 휘돌고, 축축한 안대처럼 눈앞을 뒤덮었다.

케즈는 빙글 돌며 바람에게 안개를 밀어내라고 명령했다. 바람은 그녀가 내뿜은 검의 끝에서 소용돌이치며 지시를 따랐다. 안개를 모두 흩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잠시 막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싸는 구름 속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찾았지만, 오직 두 개의 형제만 눈에 들어왔다. 팔티크와 그를 삼키는 그림자였다.

안개마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즈 나이의 절반에 불과했을 소녀였다. 안개 속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느슨하게 땀은 머리는 오래된 이끼 색으로 변해 버렸다. 피부는 하얗게 바래고,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갔으며, 손가락보다 손톱이 더 길었다. 고통스럽게 벌어진 턱은 뻣뻣하게 굳었고, 두 눈은 시체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안개가 그 마귀를 부리는 인형술사였다.

케즈는 팔티크와 모두에게 마귀가 완전히 발현되기 전까지는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창은 땅에 나뒹굴었고, 안개마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손목과 목덜미를 붙잡고 있었다.

케즈도 안개를 밀어내면서 공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안개도 생물을 붙잡으려면 일시적으로 형체와 육신을 구체화해야 했다. 그리고 팔티크는, 안타깝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녀는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휘도는 안개 속에서 두 개의 창이 번뜩이고, 또 하나, 또 하나가 나타났다. 세드루크가 팔티크의 손목을 붙잡은 팔을 찢었다. 가트는 안개마귀의 다리를 찢었고, 마귀는 고통 속에 죽어간 움직이지 않는 얼굴로 그를 돌아봤다. 그때 두 개의 창이 다시 안개마귀의 양쪽 옆구리를 꿰뚫었다. 마귀는 소리 없이 죽었고, 하얀 안개가 텅 빈 두 눈에서 흘러나왔다.

케즈는 몸을 돌리며 다른 마귀를 찾았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바람을 불러내 팔티크 주위를 정리했다. 그의 왼쪽 손목과 목덜미에서 마귀에게 붙잡혔던 곳은 말라붙은 염증으로 뒤덮인 듯 벗겨져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케즈를 바라보고 온몸을 떨며 가래가 끓는 기침을 하다가 온몸을 경련하며 땅으로 쓰러졌다.

그래도 계속 숨은 쉬었다. 안정적으로. 살아 있었다.

안개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그들을 둘러쌌다. 케즈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람은 그녀의 것이었고, 지금 그녀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다섯 마리 남았다고?” 팔티크는 썩썩거렸다. “해안으로 돌아가야 해.”

“네가 죽으면 네 마리만 더 처리하면 돼.” 가트가 말했다.

그들이 해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마로지가 나타날 것이다. 늘 그랬으니까. 케즈는 망자와 바다 야수를 한꺼번에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게다가 그들은 해냈다. 그녀가 해냈다. 팔티크는 피부가 잉크처럼 빛나는 안개마귀를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낡은 청동 발찌를 마귀의 발에서 뽑아내 처치의 증거로 주머니에 넣었다.

케즈는 그 안개마귀가 과거에 어떤 소녀였을지 생각했다. 안개가 밀려들기 전 메르웬의 체류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 폭풍이 몰려들어 옛 펠가인에 고통을 주기 전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유빙 위에서 담력 시험을 한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폭우와 심해에서 온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아래에서 담대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훈련을 마쳤다면, 약속한 바를 다할 수 있었다면, 현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케즈는 눈을 뜨고 여기에서는 너무 쉽게 찾아오는 상념을 떨쳐냈다. 케즈가 긴장을 풀고 있는 사이 안개가 지면을 따라 퍼졌고, 이제 죄수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었다. 앞서 계곡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가 수도 없이 불러낸 바람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녀가 바랐던 것보다 더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가트를 향해 소리쳤다. “저 친구를 도와줘. 내가 후미를 맡고 안개를 밀어낼 테니까.”

“산마루로 또 올라가자고?” 팔티크가 물었다. 그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개가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내렸다. 지금은 작은 도깨비불과 눈송이에 불과하겠지만, 조만간-

“저 녀석을 부축하고 갈 수는 없지.” 가트가 케즈를 향해 외친 후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러고 싶으면 내가 하든가!”

케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버리고 갈 수는 없어. 게다가 아직 창을 들 수는 있잖아. 안 그래, 팔티크?”

팔티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해하는 듯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가트는 팔짱을 끼고 발을 굳게 디었다. 말다툼으로 시간을 더 낭비할 작정인 모양이었다. 그때 계곡 전체를 뒤덮는 담요처럼 안개가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케즈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검을 회전시켜 계곡의 벽이 있는 방향으로 공기의 굴을 뚫었지만, 폭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만큼 넓지 않았다. 안개가 그녀를 감싸고, 그 움직임을 봐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무게가 사방에서 짓눌러 오는 것이 느껴졌다.

“도망쳐! 산마루로!” 그녀가 외쳤다.

일행이 도망쳤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안개가 케즈를 휩쓸고 그녀를 기억 속에 빠뜨렸다.



케즈는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목놓아 불렀다. 소음 때문에 그들에게 들리진 않았다.

파도가 굉음을 내고 바람이 포효했지만, 마로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그런 소란을 뚫고 들려왔다. 2년 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불러일으킨 파도가 누더기 해협을 강타했고, 바로 그 파도를 타고 바다 야수가 물에 잠긴 섬으로 올라왔다.

누더기 해협의 방파제는 펠가인을 보호하는 영예로운 구조물과는 달랐다. 청록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그 방벽은 수도 전역의 예술가와 아마추어의 솜씨로 멋지게 장식까지 되어 있었다. 누더기 해협의 방파제는 그곳 사람들과 같이 잔류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도 케즈는 명령을 따라야 했다. 폭풍이 주위를 강타하며 날뛰기 시작하고, 카이는 현인은 동굴 위쪽, 최악의 홍수를 피한 고지의 거처에서 내려왔다. 그는 누더기 해협의 몇 안 되는 훈련 중인 격풍사, 칼춤들을 불러모아 펠가인에서 지원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오직 그들만이 고향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현인은 두 무리에게 임무를 맡겼다. 칼춤꾼 두 명과 자원 민병대 대여섯 명에게는 운이 나쁘거나 그저 선택을 잘못해서 안전한 동굴 위쪽이 아닌 인근 해안 근처에 정착한 신규 주민들의 호상 주택을 보호하라고 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민병대와 케즈를 포함한 칼춤꾼 여덟 명은 방파제를 향해 보냈다.

케즈는 방파제를 지키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강변했지만, 현인은 반대를 용인하지 않았다. 방파제는 누더기 해협의 생존뿐 아니라 추위의 제도 내 모든 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누더기 해협은 펠가인 제국의 유산이었다. 펠가인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케즈는 싸우러 갔다. 흔들리는 잡동사니 방파제를 기어 내려가, 사방에 부딪혀 오는 파도를 헤치고, 옷이 적의 피로 검게 물들고, 손톱과 검날 대부분이 적의 비늘에 부딪혀 깨질 때까지 마로지를 베풀었다.

혼자서 싸우진 않았다.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케즈는 몇 번이고 넘어져 방파벽의 잔해에 머리를 찢었지만, 불러낸 바람이 다시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쉬르칸은 오른손에는 바람날을 들고, 왼손에는 연습용 칼을 들고 발끝으로 잔해 위를 누볐다. 그녀는 진짜 격풍사처럼 검 두 개를 다 들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랬던 쉬르칸은 방파제에 기대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죽었다. 마로지가 꼬리뼈가 그녀의 목을 꿰뚫고, 흘러내린 갈색 담즙이 턱에 매달려 있었다.

눈이 커다랐던 이자벨은 번개처럼 마로지 사이를 뛰어 다니며 우아하게



"그들을 이용했군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킬 시간을 벌어 주었다."

"그들의 목숨을 저버렸어요!" 그녀는 비난하듯 현인에게 손가락질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카이논은 말했다.

그게 끝이었다.

물의 채찍을 휘둘러 야수의 사지를 잘라냈다. 하지만 몸통이 커다란 상어 같고 상대를 찢는 거머리 같은 입을 지닌 거수가 그녀를 붙잡아 방파제 아래쪽의 바위로 내동댕이쳤고, 그녀는 한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케즈는 흐느끼며 두 눈을 감고 몇 분을 마치 몇 시간처럼 싸웠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미끄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녀는 적을 가까이까지 끌어들이고 후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연마된 바람으로 아랫배를 찢어 열었다. 수많은 괴물이 몸을 던졌지만 방파제는 파괴되지 않았다. 마침내 전투가 끝났을 때 케즈는 온몸이 뜨겁게 타올라 부들부들 떨었다.

꿈틀거리는 마로지 사체 수십 구가 뚝뚝뚝한 방파제를 따라 질척하게 늘어져서 갈매기 먹이가 되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누더기 해협은 버텼다.

방파제 꼭대기에서 카이논과 그의 수행원들은 그녀가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봤고, 현인은 피가 흥건한 가운데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손까지 뻗어 그녀를 끌어올려 주었다. 그는 침울해 보였지만 놀란 눈치는 아니었다. 다른 결과를 예상하지 않은 듯했다. 시장에서 맛있는 굶은물고기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고 할까.

케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요동치는 폭풍을 뚫고 외쳤다. 방파제는 무사했다. 지금 손이 비는 사람을 전부 해안으로 보내야 했다.

“해안은 이미 잃었다.” 카이논이 마주 외쳤다. “지금은 여기에 네가 필요하다. 폭풍의 방향이 바뀌면, 마로지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압도할 수 있으니까.”

카이논은 요충지를 골라 그곳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잃어야 하는 것을 선택했다. 수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사라졌지만, 죽어가는 제국의 땅은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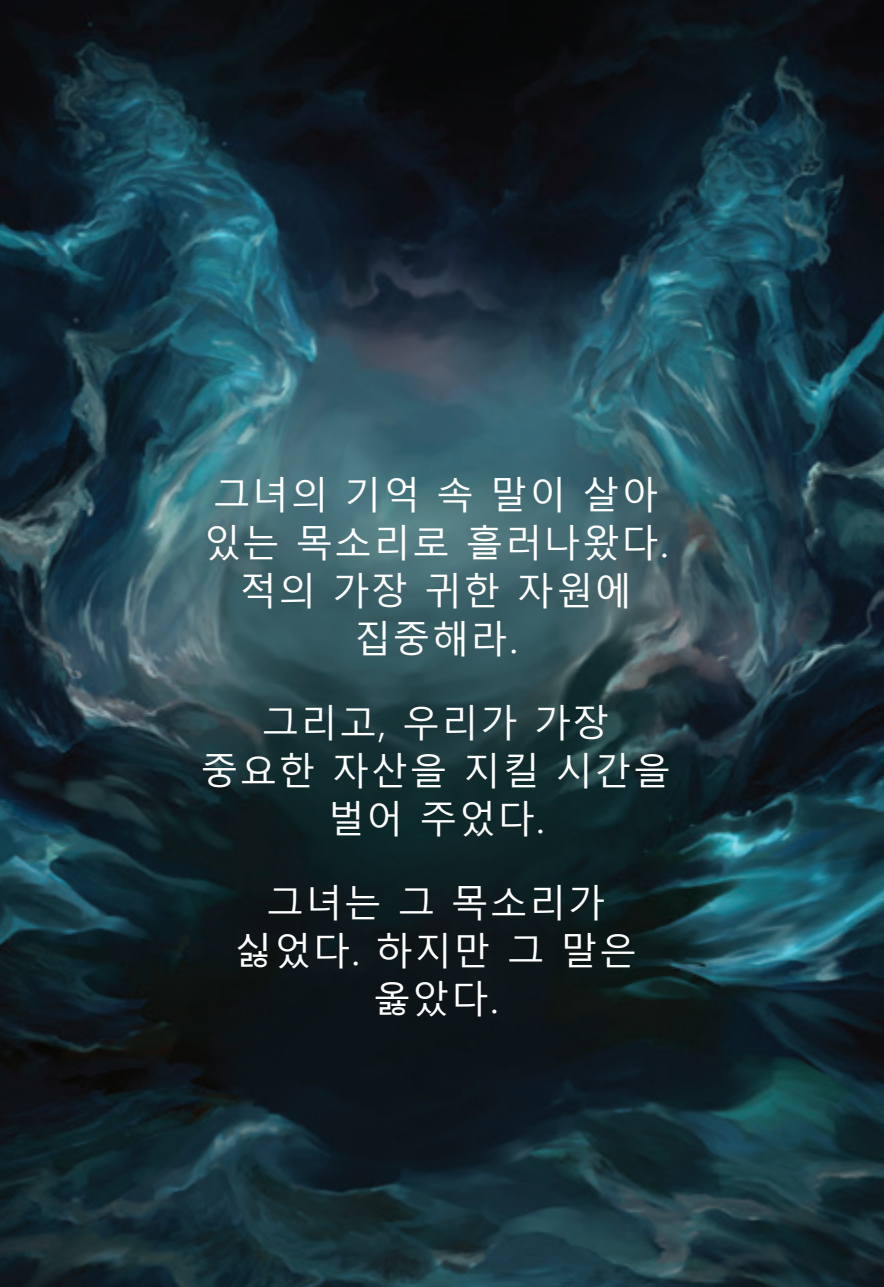
그들 아래쪽에서 누더기 해협 방어자들의 머리카락과 망토가 바닷물 속에서 생명을 잃은 채 너울거렸다.

무엇을 위해서? 너무 큰 대가였다.

“왜 해안으로 사람을 보냈습니까? 왜 그냥 주민들도 언덕 위로 올려보내고, 여기에 방어선을 집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적의 가장 귀한 자원은 집중력이다. 단 한 명의 칼춤꾼이라도 마로지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

그거였다. 너무나도 명백한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기억 속 말이 살아
있는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적의 가장 귀한 자원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킬 시간을
벌어 주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싫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았다.

“그들을 이용했군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킬 시간을 벌어 주었다.”

“그들의 목숨을 저버렸어요!” 그녀는 비난하듯 현인에게 손가락질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카이논은 말했다.

그게 끝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괴성을 내지르며 주먹으로 카이논의 턱을 때려 쓰러뜨렸고, 현인의 수행원들이 그녀를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 그렇게 속죄가 시작되었다.

현인을 공격하면 추방되어야 했다.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펠가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방법도 많았다. 카이논이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면, 바로 그날 뗏목에 묶고 배를 길게 베어 연 후 내장으로 뒤덮어 오한 암초 근처의 유빙 근처에 띄웠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녀는 그날 밤을 내장을 쪼아대는 바닷새와 함께 보내고, 해가 뜰 때쯤엔 마로지의 배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현인은 그냥 그녀를 우리에게 가뒀다. 그리고 풀어주었다. 냉담한 카이논이 그녀의 목숨에 가치가 있다고, 자기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누더기 해협은 쓰레기의 섬이었다. 굳고 방어할 수 없는 곳. 씨실까지 썩어 버린 직물. 하지만 케즈는 그곳을 위해 피를 흘렸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케즈는 턱을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안개 속에서 과거가 현재로 흘러들었다. 기억 속 방파제를 올라가던 때, 그녀는 여전히 들려오는 비명을 향해 버둥거리며 메르웬의 체류지의 산마루를 절반쯤 기어올랐다. 그녀가 아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몽상에 빠져 해협 출신들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그것 때문에...

안개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잘 올라오진 않았지만, 희박하긴 해도 분명히 존재했다. 안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케즈는 정신을 차렸다. 돌바닥을 타고 오르느라 손이 여기저기 상처 입고 멍들었지만, 검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케즈는 나머지 거리를 달렸다. 바람이 그녀의 걸음을 재촉하고 밀어 올려 준 덕분에 그녀는 바위와 바위를 타넘어 단 몇 분 만에 정상 근처에 도달했다. 그때쯤 죄수들의 비명은 대부분 잦아들었고, 그녀는 폐가 안개로 가득 찬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또 한 번의 불운한 전투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그녀는 정상에 올라 자비롭게 평평한 돌 위에 섰다. 안개가 발치를 휘둘러 그녀를 시험했다. 삼키지는 않았다. 계곡에서처럼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상에서는 여러 형체가 움직였고, 대부분 연기가 그 뒤를 따르는 중이었다. 안개마귀 넷이 가트를 둘러쌌다. 그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한 마귀의 떠도는 유해가 그의 아래에 널브러져 있었지만, 다른 마귀들이 그의 위에 쪼그리고 앉아 폐에 남은 따뜻한 숨결을 뿜아내려 했다.

다른 마귀 둘이 팔티크를 둘러싸고, 안개로 덮인 손가락을 앞서 입은 상처에 찔러 넣었다. 그는 마귀들에게서 떨어지려고 발버둥쳤지만, 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케즈는 재빨리 소용돌이치는 돌풍을 내보내 남은 안개를 흩어 놓으며 마귀들이 따라가는지 확인해 봤지만, 놈들은 지금 사냥감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모두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들은 마귀 한 마리를 가까스로 물리쳤다. 지금 비무장 상태의 팔티크는 혼자서 마귀 둘을 상대해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케즈는 힘껏 숨을 내쉬었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안개마귀, 긴 튜닉을 걸친 키 큰 농부가 가트에게서 떨어져 나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케즈가 검으로 원을 그렸고, 그녀의 얼굴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류가 그 마귀를 가뒀다. 그녀는 기이할 만큼 빠른 속도로 마귀를 세 번 베었고, 생물의 찢긴 상처에서 하얀 구름이 흘러나오는 걸 지켜봤다. 이 마귀는 목에 소박한 펜던트를 걸고 있었고, 그것이 비틀거리는 사이 케즈는 끈을 끊고 펜던트를 잡아당겼다. 그렇게 죽음의 증거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녀는 흐르는 공기를 검을 지나 가트의 숨결을 뿜아내고 있는 마귀에게 똑바로 쏘아보냈고, 앞으로 내달려 싹쓸바람의 힘으로 안개마귀와 충돌했다. 마귀의 몸이 시들고 요동치는 안개에 씻겨 사라졌다. 하지만 케즈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머지 마귀들이 발톱을 휘둘러 그녀의 살점을 떼어냈다.

케즈는 적이 자신을 땅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춤을 추듯 뒤로 물러났다. 마귀가 남긴 상처가 얼음장 같은 냉기로 타올랐다.

가트도 이제는 눈을 떴지만, 싹싹거리는 안개마귀가 여전히 그를 노렸고, 또 한 마리가 팔티크에게서 멀어지는 중이었다. 마귀가 두 손을 내저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케즈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러 베었다. 시야가 한 점까지 좁아져 그 뒤에서 마귀 또 한 마리가 기어오는 걸 보지 못했고, 그 마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녀의 머리와 목을 찔렀다.

마귀가 그녀에게 매달리는 사이, 케즈는 처음엔 고통 때문에, 그리고 다시 가쁜 호흡 때문에 헐떡였다. 케즈는 말을 듣지 않는 근육 대신 바람을 부려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멀리 떨어지진 못했다. 바람에 대한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었다.

동료들을 흘끗 보자, 수치심과 분노가 케즈를 강타했다. 그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약속해 놓고도 그들을 모두 죽게 하고 있었다.

케즈는 오른손으로 원호를 그리며 검을 휘둘러 공격 기회를 찾는 마귀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팔티크 옆에서 날뛰는 생물을 향해 공기 침을 던졌다. 그렇게 약한 공격으로 상처를 입힐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끌 수는 있었다. 마귀가 사냥감에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케즈는 휩쓰는 바람으로 팔티크를 강타해서 그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내던졌다. 팔티크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모습이 보이자, 케즈는 마루션으로 돌아가 치킨 눈으로 가트를 찾았다.

수목 한계선 근처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잿빛 얼굴은 창백하고 웃음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귀를 하나 쓰러뜨렸다. 그는 투사였다. 어찌면-

줄린 표정의 세드루크가 케즈 앞에서 일어섰다. 그의 벌어진 입에서 안개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검을 휘둘러 그의 텅 빈 머리를 베고 그대로 검을 날렸다. 그리고 그에게 붙잡힌 순간 공기를 당겨 검을 회수했다. 세드루크의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고, 몸은 풀썩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뒤에서 죽은 눈의 폰니드와 실라가 네 발로 기어왔다. 마로지는 재앙과도 같았지만, 수를 셀 수는 있었다. 하지만 안개마귀는 그들이 목숨을 빼앗을 때마다 수가 늘어만 갔다.

뒤로 물러나던 케즈의 장화에 차인 자갈이 산마루 너머로 떨어져 내렸다. 보호할 사람이 누가 남았지?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가트는 능력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마귀들이

팔티크에게 물려들었고, 그는 아직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다른 마귀를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남은 죄수들은 지금 움직이든 가만히 있던 시체에 불과했다. 케즈는 기진맥진한 채 서 있었고, 생명력이 약해지면서 바람을 부르는 힘도 약해져만 갔다. 정상에는 마귀 다섯 마리가 죽어 있었지만, 아직 남은 게 더 있었다. 케즈는 그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기억 속 말이 살아 있는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적의 가장 귀한 자원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킬 시간을 벌여 주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싫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옳았다.

케즈는 남은 신념과 힘을 모두 끌어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검을 붙잡고, 빙빙 도는 십여 개 바람의 축수를 남은 해협 출신들에게 내보냈다.

가슴 가득 번져가는 불쾌한 빨간색 구멍과 함께 마귀 두 마리와 맞서 싸우는 가트를 바람이 보듬어 주었다. 하지만 너무 약해진 바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진 못했다.

그래도 그의 폐에서 공기를 빼내 줄 수는 있었다.

그가 숨을 내쉬자 죽은 폰니드와 실라가 케즈에게서 시선을 돌렸고, 빠다귀 코를 하늘을 향해 쳐들고 쉬운 먹잇감을 보았다. 케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해협 출신 망자들이 먹이를 먹으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손이 가트의 목을 붙잡았고, 훌쩍거리는 숨결이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굶주림에 이끌린 마귀들은 그를 쓰러뜨렸고, 그의 벌어진 입으로 안개가 흘러들기 시작했다.

팔티크는 공포에 질린 채 미친 듯이 헐떡거리며 들이쉴 수 없는 공기를 찾았다. 그의 희번덕거리는 눈이 케즈를 찾고, 마루선 근처에 있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축 늘어져 쓰러졌지만, 마귀들의 쇠췌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이러지 마. 도와줘. 제발.”

케즈는 다른 무엇보다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약속했잖아.” 팔티크는 축축한 말을 내뱉었다. “약속했잖아.”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전장에 집중해야 했다.

가트에게는 남은 공기가 거의 없었다. 질식하여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는 발작적으로 두 팔을 휘두르며 마귀들을 향해, 죽음 그 자체를 향해 꺾꺾거렸다.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녀에게 하는 말만큼은 케즈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현인보다 나올 게 없어.”

팔티크와 가트가 죽을 때까지 몇 분이 걸렸다. 그동안 메르웬의 체류지 마귀들은 두 사람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부서진 검 하나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도 칼춤꾼보다는 쉬운 사냥감이었다. 그 생물들은 만족한 듯 웅크리고 앉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먹이를 먹을 기회뿐이었다.

케즈는 상처의 아픔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숨을 참고 가만히 서서 전투의 초점이 옮겨가기를 기다렸다. 기회를 기다렸다.

손에 들린 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안개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카이논은 바람을 막으려고 몸을 감쌌다. 하지만 양털이 사정없이 근지러웠다. 배에 남은 수행원들은 체류지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속삭임 앞에서도 대부분 불안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물론, 설사 불안하다 해도 절대 티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한 시간이 더 흐르고, 그들은 그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현인은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마귀들을 처치하려고 누더기 해협의 속죄자들을 보냈고, 그들의 성패를 확인하기 전까진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화로 침전물을 밟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경비병 두 명과 함께 골짜기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케즈가 절뚝거리며 골짜기를 빠져나와 그의 앞에 미동도 없이 섰다. 경비병들은 투창을 뒤로 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케즈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머리카락은 피와 비에 흠뻑 젖어 들려붙고, 얼굴은 얼어붙기라도 한 듯 섬뜩하게 침착했다. 가죽 방어구는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몸을 떨지 않았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다.

케즈는 두 팔로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카이논은 경비병들에게 무기를 내리라고 손짓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 케즈를 살피었다. 그녀의 장화에 자갈이 달라붙어 있었다. 두 눈의 흰자위에도 안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카이논 현인은 아무 이상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경비병들은 무기를

내리고 해안을 향해 돌아섰다. 케즈는 아무 말도 없이 가장 앞에서 걸었다. 배에 가까워지자 걸음도 차분해졌다.

그녀는 분명히 다혈질적이고 오만했다. 속죄 이후에도 그랬다. 하지만 그런 영혼을 담금질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재능 있고 영리하기도 했다. 생존자였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위대한 펠가인의 감시자, 정박하지 않은 자는 현인들에게 섬들을 덮칠 어둠에 대해 경고했다. 그건 폭우와 안개 너머의 위험으로, 그들의 고향 전체를 사멸시키려고 위협하는 존재였다. 정박하지 않은 자들은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아른거리는 눈은 역사를 돌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어둠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말할 수 없거나, 알지도 못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국가의 끔찍한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

케즈가 훌륭한 격풍사가 된다면 그걸 찾아내고 견뎌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어쩌면 언젠가 어둠이 사라지고, 폭풍은 잦아들고, 제국이 다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 카이논의 선견지명이 그녀를 수도로 이끌었다.

“속죄는 어떻게 되었나?” 그는 그녀와 배와의 거리가 몇 걸음 떨어지지 않았을 때 물었다. “나머지 죄수들은?”

케즈는 가져온 꾸러미를 펼치고 딸랑거리는 내용물을 갑판에 쏟아냈다. 발찌와 사슬, 펜던트와 증표. 여섯 개보다는 훨씬 많았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리라.” 그녀는 말했다.

케즈가 배에 오를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

